

Ⅲ. 지역내총생산의 개념 및 용어해설

1. 지역내총생산의 개념

1.1 지역내총생산이란?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GRDP)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 내에서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액이다.

지역내총생산은 지역별·경제활동별로 발생한 생산측면의 부가가치(소득)이므로 발생한 소득이 지역간 이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 주민에게 귀착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분배측면의 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1.2 여러 가지 개념의 구분

1.2.1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 GRP)

일정기간 동안의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하여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용역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GRDP)은 일정지역 즉,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지역총생산(GRP)은 “지역주민” 즉, 생산활동을 하는 생산주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2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GNP)

일국의 국민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액을 의미한다.

1.2.3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

자국의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일국에 거주하는 생산주체에 의해 새로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액을 의미한다.

1.3 지역총생산, 국민총생산, 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의 관계

주민개념에 의한 지역소득을 지역민총생산(GRP)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총생산(GNP)에 대응하는 지역단위 개념으로서 지역주민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어느 지역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지역의 총생산에 포함시킨다. 이에 반해 지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GDP)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해당지역 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지역내총생산에

계상한다.

지역소득은 GNP와 마찬가지로 UN이 권고한 국민계정(A System of National Account : SNA, 1993)의 개념 및 체계에 따라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각각 추계할 수 있다. 『지역내총생산』은 그 중 생산측면의 지역소득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표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념간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로 쓸 수 있다.

- $GNP = GDP + \text{해외부문 (대외 순수취 요소소득)}$
- $GDP = \sum GRDP$
- $GRP = GRDP + \text{역외부문(대역외 순수취 요소소득)}$

2. 지역내총생산 추계 목적 및 필요성

2.1 추계목적

지역내총생산의 추계 목적은 첫째, 지역경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경제지표로서, 각종 지역관련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 및 지역관련 연구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지역경제 상호간의 비교분석과 균형있는 지역경제개발모형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2.2 필요성

- 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시군단위 통계수요에 대처
 - 자치단체의 각종 지역단위 개발계획의 수립 및 정책수요 급증
 - 지역정책성과 예측 등 각종 경제분석 기초자료 필요
 - 시·군단위 종합경제지표 필요
- ②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에 대한 분석 및 평가지표 필요

2.3 기대효과

- ① 지역단위 개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균형개발계획의 지표 → 낙후·성장지역 파악, 격차비교 등
- 지역별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 성장 유망지역 파악, 지역별 특화산업육성

② 각종 지역경제 분석자료로 활용

- 지역경제 종합지표 → 지역경제력 수준 종합 분석
- 지역산업구조 분석 → 지역별 산업구성의 실태 파악

③ 국가·지역 계획간의 연계자료

- 국토종합개발계획 - 강원도 종합개발계획 - 시군 개발 계획간 연계

④ 기초자치단체별 경제규모 산출자료

- 시군별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구성비, 경제성장률, 1인당 총생산수준
- 시군별 산업특화도(입지상), 노동생산성, 자본 및 노동 집약도 등

3. 지역내총생산 작성체계

3.1 작성방법

국가경제 혹은 지역경제 전부를 빠짐없이 계량화한다는 것은 실로 방대한 작업일 뿐더러 어떤 측면에선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해당 지역내의 각 경제주체가 생산한 모든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과 가격을 파악하여 집계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모든 기초자료가 빠짐없이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모든 자료를 얻는다는 것은 어려울 뿐더러 또 가능하다 할 지라도 엄청난 비용을 수반할 것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태적 성격을 띄고 있어 특정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성과의 흐름을 일정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기란 난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주어진 예산의 제약하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획득 가능한 자료를 파악·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정을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내총생산 통계를 작성하는 작업은 유형의 수치를 계량화하여 집계하는 작업뿐 아니라, 무형의 수치까지를 추정해내야 하는 추계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추계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계정체계가 규정하는 계정작성의 기본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현실의 경제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추계작업에 이용될 수많은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3.2 추계대상

지역내총생산이 무엇을 추계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과 소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수많은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생산활동을 통해 공급된다.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자 자신에 의해 소비되거나 타인에게 판매되어 소비된다.

이 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에서 그것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어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공제한 것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이러한 부가가치는 화폐가치로 환산되어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렇게 일정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생산활동의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을 총생산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이것이 지역내총생산의 추계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총생산은 생산활동에 참여한 각 경제주체들에게 소득으로 분배되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인간의 생활을 위해 지출된다. 결국 분배된 소득의 합 즉 총소득은 총생산과 같으며 총지출과도 같게 된다. 이를 소득의 3면등가 원칙이라고도 하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소득이라는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객체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와도 같은 것이며, 총소득을 파악하려 할 때 포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생산측면에서 이를 추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추계항목

4.1 산출액

산출액(Output)이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화폐평가액을 말하는데 생산주체별로 산출물의 형태와 비용구조가 같지 않으므로 산출액의 정의도 생산주체별로 다르다.

산업의 산출액은 일정기간 중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생산자 가격, 93SNA에서는 기초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이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그것이 실제 판매되었거나 재고로 남아 있거나와 관계없이 생산시점에서 평가된다.

그러나 재화생산의 경우엔 생산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액을 구할 수 있지만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이나 수량화가 곤란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업종의 경우엔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즉, 장기간에 걸쳐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설업은 투입된 비용을 산출액으로 계상하고, 도소매업의 경우엔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을 산출액으로 계상하며, 운수업은 운수 활동에 따른 영업수익을 산출액으로 처리한다. 서비스업은 요금 수수료 등 서비스제공의 대가를 산출액으로 계상한다.

금융업의 경우엔 송금, 추심, 환전 등에 따른 실제서비스판매수입과 수취재산소득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해서 구해지는 금융중개서비스료를 산출액으로 보며, 보험업의 경우엔 수취보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에서 지급보험금과 필요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차감한 보험서비스료를 산출액으로 본다.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경우에는 생산하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어서 평가하기가 곤란하므로 생산에 투입된 총투입비용을 산출액으로 계상한다.

가사서비스생산자는 서비스생산에 투입되는 것이 노동뿐이므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산출액으로 본다.

4.2 중간소비

중간소비는 생산을 위해 투입된 내용연수 1년 이하의 비내구재와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생산에 직접 투입된 재료비뿐만 아니라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상품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일체의 직·간접비용을 포함한다.

정부가 구입하는 군사장비는 파괴용 군사무기와 내구생산재로 구분하여 전자는 중간소비로 처리하고, 후자는 고정자본형성으로 처리한다.

중간소비와 자본형성의 구분은 투입된 재화와 서비스가 회계기간 중에 소진되는가 혹은 회계기간 이후에도 남아 이익을 발생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수선비의 경우 고정자산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시키는데 소요된 것이라면 중간소비에 계상되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성능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자본형성으로 분류된다.

4.3 부가가치 및 구성항목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의해 새로이 창출된 가치로서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뺀 것

이다. 부가가치는 고정자본소모,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세('68SNA에서의 간접세)와 생산보조금(공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고정자본소모는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자본재의 감소분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각 제도부문에 배분된다.

4.3.1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는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형태의 급여는 물론 피용자를 위하여 사회보장기금·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부담금을 포함한다. 현금급여는 피용자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일체의 금전을 의미하는데, 실제 수취한 금액외에 원천과세액도 포함하며 의료보험료와 같은 사회보장기금이나 연금기금에 대한 피용자 부담금도 피용자보수에 포함된다. 또한 고객이 서비스업 종사원에게 직접 지급한 봉사료도 고용주가 서비스 판매대가로 일단 수취하였다가 현금급여형태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

현물급여는 고용주가 피용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 재화와 서비스로서 주로 피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피용자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고용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작업복의 제공, 직원휴게실의 마련, 정기 건강진단 등에 대한 지출은 피용자보수로 계상하지 않고 생산과정의 중간소비로 처리한다. 그밖에 피용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기에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도 피용자보수에 포함한다.

4.3.2 영업잉여

영업잉여는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에 참여한 자본에 대한 대가이며 부가가치총액에서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순생산세(생산세 — 생산보조금)를 뺀 잔액과 같다. 이 영업잉여는 생산주체의 투입구조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서만 발생하며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부가가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4.3.3 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는 모든 유형자산이 경제적으로 일정한 예상수명을 가진다는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즉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에서의 사용, 시간의 경과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노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언젠가는 새로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소모된 고정자본의 가치만큼을

부가가치 중에서 분리하여 비축해 두는데, 그 부분을 고정자본소모라고 한다.

4.3.4 생산세(공제 생산보조금)

생산세는 93SNA에서 새로이 도입된 개념으로서 세율차이에 따른 생산구조의 왜곡방지와 순수한 생산자 몫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생산물세와 기타생산세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생산물세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이 생산자에게 부과되어 생산비에 포함됨으로써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를 말한다.

한편 생산보조금은 산업진흥 또는 제품의 시장가격 인하 등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생산자에 지급함으로써 생산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인데 예로서는 정부의 탄가 안정대책에 대한 적자보전과 여객선안전관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가운데서도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수취한 부분은 경상이전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투자의 목적이거나 수해·화재 등에 따른 자본재의 손실보전을 위한 부분은 자본이전으로 처리하고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게 및 가게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정부로부터 수취한 교부금은 보조금이 아닌 경상이전 거래로 분류한다.

5. 주요개념 및 용어해설

5.1 생산의 포괄범위

수 많은 이질적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국민경제의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생산되고 처분되는 각양각색의 재화와 서비스를 평가집계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포괄범위에 관한 엄밀한 정의가 필요하다.

UN 통계국의 국민계정체계(SNA)는 생산의 범위를 『본업으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및 부업으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중 교환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칙 하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원시적 생산물이 생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게 되는데 이 경우 시장경제와 분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의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생산수준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점을 감안하여 SNA에서는 생산자의 생계를 위한 생산활동은 그것이 비록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생산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요약하면

- ① 원시생산자 즉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종사하는 생산자의 경우에 원시생산물은 교환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생산에 포함 시키나 비 원시 생산물은 교환된 것만을 포함시킨다.
- ② 비원시생산자가 본업으로 생산한 것은 교환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생산에 포함 시키지만 부업으로 생산한 원시생산물 전부와 교환되지 않은 비원시생산물은 제외시킨다.

결론적으로 모든 생산자가 부업으로 생산하여 직접 소비한 비원시생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산물이 교환여부에 관계없이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1993년 개정된 SNA에서는 전체 생산 및 소비의 종합적인 측정과 금융계정, 대외 거래계정 등 타 계정의 추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불법생산, 은닉생산 및 지하경제도 생산에 포함시키도록 생산의 포괄범위를 일부 수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계정작성에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5.2 기록시점

거래는 일정시점에서 발생하여 곧바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에 걸쳐 거래 행위가 지속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하는 시점과 평가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판매계약의 성립, 제품의 인도, 대금의 수령, 회계상의 처리 등이 시차를 두고 일어나고 특히 이러한 일련의 거래가 두 회계기간에 걸쳐 있을 경우 거래시점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국민계정에서는 요구급발생주의원칙(要需給發生主義原則 ; receivable - payable basis)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대금의 수급시기와 관계없이 재화와 서비스의 법적 양도시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생산계정에서의 거래의 기록시점을 보면 산출액의 기록에서 생산된 재화는 판매되거나 재고로 남아 있거나에 관계없이 생산시점에서 산출액에 계상되고, 특성상 재고가 없는 서비스는 제공시점에서 기록된다.

중간소비의 기록에서 산업의 경우 중간재로 쓰일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에 실제 투입 되는 시점에서 기록되고, 정부서비스생산자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경우 중간재로 쓰일 재화와 서비스가 구입되는 시점에서 기록된다.

5.3 시장가격과 기초가격 및 요소가격

국민계정에서 파악하는 생산물은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시장가격이 소비자의 한계효용과 생산자의 한계비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거래규모의 평가가 국민경제의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고, 시장가격이 여타의 평가기준보다 파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3SNA에서는 산출물을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금(보조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는 것이 생산성 분석이나 생산자의 의사결정 분석 등에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기초가격은 구매자가격에서 순생산물세(생산물세 - 보조금)와 유통마진을 공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총생산에서도 '93 SNA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기초가격 부가가치와 시장가격 부가가치를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표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고 자가소비한 생산물, 자가소유주택의 임료 등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상품의 기초가격으로 평가하고, 자가건설과 같이 그 품질 수준의 다양성으로 인해 적절한 시장가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와 정부서비스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 등과 같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평가한다.

생산을 위해서는 각종 생산요소들의 투입이 필요하며 이들 생산요소에 지급된 비용은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투입된 생산요소 혹은 각 산업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생산을 요소비용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문이 시장경제에 관여하고 있는 통상의 경제제도 하에서는 생산물세와 보조금이 존재하며 이는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의 시장가격에는 생산요소의 제공자에게 지급된 비용이외에 생산자가 납부한 각종 생산물세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과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생산물세-보조금 =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5.4 기록원칙

산출액은 시장가격 중 생산자가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93SNA에서는

세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초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간소비는 산업의 경우에는 실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정부 서비스생산자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서비스생산자의 경우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구입되는 시점에서의 구매자가격으로 평가한다.

5.5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

지역내총생산에는 당해년의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당해년가격 계열과 어느 특정 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기준년가격 계열의 두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이 당해년가격 이외에 기준년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가가 변동하는 한 당해년의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지역소득 계열이 진정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당해년가격 기준은 생산물량에 당해년가격을 곱한 값이므로 두 시점 사이에 있어 그 수준의 단순 비교만으로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물량변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년가격과 기준년가격에 의한 지역소득 계열은 각각 서로 다른 독자적인 이용목적에 지니고 있다. 즉, 지역경제의 구조변동이나 지역소득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중요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년가격 계열을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친 물량수준 및 구조변동을 관찰하려면 기준년가격 계열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준년가격에 의한 지역소득의 평가에는 많은 제약과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기준년가격 계열을 작성하는데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과 가격에 대한 완벽한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동하는 경제환경 하에서 생멸하는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별 수량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얻는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기준년가격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과 비교 시점의 재화와 서비스가 동질의 가치를 갖는다는 전제이다. 이런 전제하에서만 두 시점 사이의 생산된 물량수준의 변동이 가격변동을 제거한 소득수준의 변동을 대변하게 되는데 기술진보와 신제품개발, 품질개선이 일반화된 현실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같은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기준년가격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두 시점 사이의 소득수준 비교를 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으로써 기준년가격 계열의 작성은 의미를 가지며 지역소득계정에서도 이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추계가 가능한 부문도 생산물의

흐름으로 포착한 생산소득과 지출측면에서 본 지출소득 뿐이며 분배소득이나 저축, 조세 지불 및 이전지불 등은 기준년가격에 의한 평가가 어려운 부문이다.

기준년가격 평가의 기준년으로 선택되는 해는 다음 기준년까지 가격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그해가 정상적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실제 어려운 일이다. 또 기준년에서 멀어질수록 당해 년도의 재화와 서비스를 적절히 평가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기준년간의 간격을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준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개편작업과정이 필요함은 물론 개편에 필요한 수많은 기초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통상 10년, 혹은 5년을 주기로 기준년을 정하는데, 보통 2000년, 2005년 처럼 연도의 끝자리 숫자가 0, 5인 연도를 기준년으로 하며 우리나라는 5년을 주기로 기준년을 정하고 있다.

5.6 고정가중 실질GRDP와 연쇄가중 실질GRDP

지역내총생산(GRDP)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어느 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당해년가격)GRDP와 실질(기준년가격)GRDP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GRDP는 비교년의 생산량(물량)에 기준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이 때 실질GRDP의 추계 방법은 기준년의 고정 여부에 따라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은 기준년 개편이 있기 전까지 매년 동일한 기준년을 사용하는 것이고, 연쇄가중법(chained weighted method)은 기준년이 매년 직전년도로 변경되어 실질GRDP를 구하는 것이다.

실질GRDP의 추계는 기본적으로 지수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고정가중법에서는 고정 물량지수를, 연쇄가중법에서는 연쇄 물량지수를 사용한다. 고정 물량지수는 기준시와 비교시의 물량변동을 직접 비교하는 데 비해 연쇄 물량지수는 연속적인 기간의 단기물량 변동을 누적함으로써 떨어져 있는 두 기간의 물량변동을 측정한다.

즉, 고정가중법에서는 기준년 가격을 기준으로 각 연도의 실질GRDP를 먼저 구하고 성장률을 사후적으로 계산하며, 연쇄가중법에서는 매년 직전년도를 기준년으로 삼아 당해년의 전년대비 물량증가율(연환지수)을 먼저 구하고 이를 누적하여 당해년의 연쇄 지수와 실질GRDP금액을 사후적으로 계산한다.

고정가중법은 기준년의 가중치가 비교년에 계속 유지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GRDP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으며, 연쇄가중법은 최근 경제상황과 밀접한 직전년도의 상대가격 및 가중치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함에 따라 산업구조·생산기술의 변화, 상품의 등장·퇴장 등을

즉각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연쇄가중법에 의할 경우에는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아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UN, OECD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19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는 G(R)DP 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를 위해 실질 G(R)DP를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05년 기준년 개편시에는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을 혼용하여 실질GRDP를 추계하였다. 즉 업종별로는 고정가중법에 의해 실질GRDP를 추계하였으며, 시도 전체에 대해서는 고정가중 실질GRDP와 함께 연쇄가중법에 의한 연쇄물량지수도 추계하여 성장률 측정을 개선하였다.

5.7 디플레이터(Deflator)

당해년가격으로 표시된 시계열지표에서 가격변동분을 제거한 기준년가격을 구할 때 사용하는 가격지수를 디플레이터라고 한다. 이 경우 디플레이터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등 특정 가격지수가 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구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각 구성항목별로는 해당 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하여 실질치를 구하며, 추계 결과상의 디플레이터는 『당해년가격 ÷ 기준년가격 × 100』으로 산출한다. 지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는 매우 광범위하여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관련된 가격지수는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임금 등 가격지수 까지도 이용된다.

IV. 지역내총생산 추계방법

1. 개 요

지역내총생산은 지역별 산업구조와 변화, 산업의 성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다양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지역별로 1년 동안의 생산측면을 측정하여 계량화하였으며, 이를 표준산업분류를 토대로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나누어 추계한다.

당해년가격에 의한 산출액 추계는 기초자료 사정에 따라 생산량에 당해년가격을 곱하거나, 관련자료에서 추출하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 추계는 기초자료 및 업종성격에 따라 당해년 물량에 기준년 단가를 곱하거나 당해년 산출액을 관련 가격지수로 환가하여 구한다. 또한, 기준년 산출액을 물량지수로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기준년가격에 의한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각 경제활동부문별 산출액 및 부가가치 추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2. 경제활동부문별 추계방법

1) 농림어업

농림어업은 농지 또는 특정시설 내에서 보통작물, 과수 및 향신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특용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생산하는 작물생산업과 가축,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사육 번식하고 가치를 증식시키며, 또한 이들로부터 고기, 젓, 털, 알 등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업, 그리고 작물생산 관련서비스 및 축산관련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농업관련 부대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농업, 영림산림용 종묘생산, 육림활동, 벌목 활동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임업, 그리고 어획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으로 분류된다.

< 당해년가격 >

가) 농 업

농업은 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농업관련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추계하는데, 작물생산업에는 식량작물, 과수류, 채소류, 특용작물 등의 생산활동이 포함되며,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산출액은 품목별로 지역별 생산량에 농협 등에서 조사한 농가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중간소비는 종자비, 비료비, 수리관개비, 농약비,

농경비 및 기타 비용으로 나누어 농림부나 농협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구한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축산업도 작물생산업과 같이 산출액은 품목별로 추계하며, 부가가치는 축산업 전체의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가축의 산출액은 가축통계와 도살통계를 이용하여 지역별 생산두수를 구하고, 여기에 지역별 해당품목의 단가를 적용하여 추계하며, 양잠, 양봉, 우유 및 달걀 등의 산출액은 농림통계연보 등으로부터 구한 지역별 생산량에 지역별 농가판매가격을 곱하여 구한다. 중간소비는 사료비, 수의비, 입란비, 초지조성비, 기타비용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투입량에 지역별 농가구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농업관련부대서비스업의 산출액은 농경서비스, 수리관계서비스, 가금부화서비스, 가축개량서비스와 농협의 지도서비스, 농업기반공사의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구한다. 농경서비스, 수리관계서비스, 가금부화서비스 및 가축개량서비스의 산출액은 작물생산업 및 축산업의 중간소비로 계상된 금액을 이용하고, 농협의 지도서비스 및 농업기반공사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해당기관의 결산서를 이용하여 구하며, 부가가치는 산업연관표나 관련기관의 결산서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나) 임업

임산물의 산출액은 산림청의 임산물생산통계를 이용하여 정부서비스생산자의 산출액으로 처리되는 국유림, 공유림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역별 임업의 산출액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다) 어업

어업은 내수면어업, 연근해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양식 및 천해양식 등으로 구분하며, 산출액은 해양수산통계연보상의 지역별 산출액을 계상한다. 지역별 부가가치는 어가경제통계 등을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산출액에 곱하여 추계한다.

라) 농림어업 관련 서비스업

농림어업관련서비스업의 농경서비스, 수리관계서비스 등 산출액은 작물재배업의 중간소비로 계상된 금액을 이용하고, 농수축협외의 지도서비스는 해당기관의 결산서를 이용하여 구하며, 축산, 임업관련서비스업 등의 산출액은 외형거래액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부가가치는 산업연관표나 관련기관의 결산서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기준년가격>

가) 농 업

농업의 지역별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주로 지역별·품목별 생산량 및 중간소비량에 기준년가격을 곱하여 추계한다. 기준년가격에 의한 부가가치는 기준년 가격에 의한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에 의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하는데, 생산량과 이에 대응되는 기준년 가격자료를 동시에 얻을 수 없는 부문은 당해년가격 산출액 및 중간소비를 가격지수로 환가하거나 기준년 산출액을 물량지수로 연장하여 추계한다.

나) 임업 및 어업

임업 및 어업의 지역별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은 품목별 생산량에 해당 기준년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 기준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다) 농림어업 관련 서비스업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당해년가격 산출액, 당해년가격 중간소비를 관련지수로 환가하여 구하며, 기준년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2) 광 업

광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불문하고,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액체 및 기체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 채취, 추출하는 활동 및 품질개선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및 기타 비금속광물 채굴과 금속광물의 탐사, 광산개발, 시굴, 채굴 및 추출 활동과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마쇄, 파쇄, 체질, 선별 채굴유, 용해, 원유토피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 및 손질, 품질개선활동을 포괄한다.

<당해년가격>

이 부문은 중분류별로 10인 이상 사업체와 9인 이하 사업체로 구분하여,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상의 10인 이상 사업체의 생산액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산업)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9인 이하 사업체의 생산액을 더하고, 여기에 광공업동태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한 재투입액 및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임대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산출액으로 한다. 중간소비 역시 10인 이상과 9인 이하로 나누어 각각 직접

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합하여 구하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기준년가격>

광업의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은 중분류별로 시군별 당해년 산출액을 관련 물가지수로 환가하거나 기준년 산출액을 해당 물량지수로 연장하여 추계하고, 기준년가격에 의한 중간소비는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과 마찬가지로 당해년가격 중간소비를 관련 물가지수로 환가하여 실질화한다.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에서 기준년 가격에 의한 중간소비를 공제하거나 기준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3) 제 조 업

제조업이란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동력기계를 사용하거나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또한 제품은 도매 또는 소매 형태로 판매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하거나 분할포장 또는 재포장하는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당해년가격>

광업부문 추계에서와 마찬가지로 10인 이상 사업체와 9인 이하 사업체로 구분하여 광업제조업통계조사상의 시군별 5인이상 사업체의 생산액에 경제(산업)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시군별 9인 이하 사업체의 생산액을 더하고, 여기에 광공업 동태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한 재투입액 및 임대수입액을 합하여 산출액으로 계상한다. 중간소비도 마찬가지로 시군별 10인 이상 사업체와 9인 이하 사업체의 생산비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기준년가격>

제조업의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은 기준년도 산출액에 통계청에서 작성한 시군별 산업생산지수를 적용하거나 당해년가격 산출액을 관련물가지수로 환가하여 구한다.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에 기준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하거나, 기준년 가격에 의한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에 의한 중간소비를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업은 주로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활동이며, 가스업은 가스의 제조, 제조된 가스·천연가스 및 유사한 가스를 일반 수용가에게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사업(열공급업 포함)을 말하며, 수도사업은 지방정부의 공기업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부문 및 수도사업에 관련된 담용수 및 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당해년가격 >

전기업의 산출액과 중간소비는 해당기관의 결산서를 이용하여 추계하며,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계상한다. 전기업의 산출액은 해당기관의 손익계산서로부터 추출한 영업수익에 임대료수입과 양수용 전력소비액을 합한 금액에서 전기요금 연체료수입과 타사에서 발전한 전기의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며, 지역단위 추계를 위해 시군별 전기판매량 등을 이용한다.

가스업(열공급업 포함)의 산출액은 관련기관의 가스 매출액과 부대사업수익의 합에 열매출 수익을 합하여 시군별 산출액을 계상한다. 또한 가스업 및 열공급업의 중간소비는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비용항목을 추출하여 계상한다.

수도사업부문의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공기업결산서 자료의 해당항목을 추출하여 시군별로 계상한다.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계상한다.

< 기준년가격 >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과 중간소비는 물가지수, 투입구조별 환가지수 등 관련 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기준년가격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계상하는 이중환가법을 이용한다.

5) 건설업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건설업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 즉 경미한 공사나 자기공사는 물론 건설장비 운영업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주로 도급·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

되지만, 무면허공사업자에 의한 공사도 포함된다.

건설업의 추계는 주거용 건물건축, 비주거용 건물건축, 건축보수, 토목공사, 산업설비, 조경,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시장가격 산출액은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의 완료 시점에서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하지만, 건설업의 산출액은 건설 활동의 결과 생산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의 시장가격 산출이 곤란하므로 투입된 총비용 (공사비총액)을 시장가격 산출액으로 계상한다. 기초가격 산출액은 시장가격 산출액에서 생산물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가격 산출액으로 추계한다.

< 당해년가격 >

주거용 건물건축, 비주거용 건물건축, 토목공사, 산업설비, 조경부문의 산출액은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의 공사종류 및 공사지역별 기성액과 건설비용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건축보수는 주택보수와 비주택보수로 구분하여, 주택보수는 가구당 주택보수비에 가구수를 곱하여 추계하고, 비주택보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비주택 및 구축물보수 산출액과 비주거용 건물건축 산출액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건설장비 운영업의 산출액은 대한건설기계협회의 가동률, 국세청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각 부문별 중간소비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의 건설비용, 산업연관표의 중간소비율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 기준년가격 >

건설업의 기준년가격에 의한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는 이중환가법으로 추계한다. 기준년가격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산업연관표,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 노동부의 임금자료 등을 이용하여 구한 부문별지수로 당해년가격 산출액 및 중간소비를 환가하여 추계한다.

6)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도소매 활동과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구매자와 판매자를 대리하여 상품판매 또는 구매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 당해년가격 >

도소매업의 산출액은 재화가 생산자를 떠나 최종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추가 비용인 상업마진(trade margin)으로 구성되며, 도소매업통계조사의 판매액에서 구입액을 차감하여 추계한다. 정부의 구매활동 등은 관련 결산자료를 수집하여 추계하며, 부가가치는 산출액에 도소매업통계조사 등 관련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 기준년가격 >

도소매업의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당해년가격 산출액을 도소매판매액지수 불변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는 당해년가격 중간소비를 관련 물가지수로 나누어 추계한다. 기준년가격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7) 운 수 업

운수업은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각종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 및 화물의 운반 활동과 화물의 보관 및 이에 수반된 운수보조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 당해년가격 >

운수업의 산출액은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의 운수수입과 임대수입(토지제외)을 합하여 구하고 영업활동이 2개 이상의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자료와 관련업체별 결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며,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운수업통계조사 보고서로부터 구한 중간소비를 공제하여 구한다.

< 기준년가격 >

운수업의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과 중간소비는 물가지수 등 관련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기준년가격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계상한다.

8)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단기적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프시설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음식점업은 식당, 주점,

다방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음식·음료 등을 조제하여 판매하거나, 구입한 조제 음식물을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당해년가격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산출액은 도소매업통계조사 자료로부터 구한 음식점, 주점, 제과점, 다방 등의 판매액과 수입액 및 서비스활동지수 등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부가가치는 산출액에 도소매업통계조사 및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 기준년가격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기준년가격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당해년가격 산출액 및 중간소비를 소비자물가조사의 관련지수로 각 각 환가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공제하여 구한다.

9) 정보 및 통신업

정보 및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및 이를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출판업, 소프트웨어제작, 영상 및 오디오 기록활동,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공급, 전기통신, 정보기술 및 기타정보서비스활동이 포함된다.

< 당해년가격 >

출판, 영상부문의 산출액은 서비스업통계조사 자료 및 사업체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소프트웨어 제작,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은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영업활동이 2개 이상의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통계연보 및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등의 지역별 결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며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결산자료 및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로부터 구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 기준년가격 >

정보 및 통신업의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당해년가격 산출액 및 당해년가격 중간소비를 해당물가지수 등 관련지수로 환가하여 추계하고 기준년가격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계상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

보험 또는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금융업과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 관리하는 보험업,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활동도 포함되며, 이들의 부가가치 추계는 기본적으로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 당해년가격 >

금융업의 산출액 추계는 각 기관 결산자료상의 수입수수료, 보증료 등 실제서비스료와 의제판매수입(擬制販賣收入)인 금융중개서비스를 합산하여 구하고, 중간소비는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전기수도료 등 생산과 관련하여 소비된 제비용을 추출하여 추계한다. 단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금융감독원 등은 경상경비 지출액을 산출액으로 추계한다.

보험업의 산출액은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보험료 수입액에서 보험금 지급액과 책임준비금 순증액을 차감한 귀속보험료에 수수료 수입 등 투자수익액을 합하여 추계한다. 중간소비는 비용관련 자료에서 중간소비 항목인 관리비, 수수료 등을 추출하여 구한다. 단 수출보험은 경상경비지출액을 산출액으로 추계한다.

< 기준년가격 >

금융 보험업의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은 자금순환의 이자부 자산 및 이자부 부채 금액을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한 실질 이자부자산 및 이자부부채의 증가율로 기준년도 예금FISIM 과 대출FISIM 을 연장하여 계산한 금융중개서비스와 당해년 실제 서비스료를 각각 관련지수로 환가하여 산출한 금융실제서비스를 합하여 추계한다.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는 당해년가격 중간소비를 관련 물가지수로 환가하여 구하며, 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은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되며,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귀속임료도 포함시킨다.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작자가 없이 각종 산업용 기계장비 또는 개인 및 가정용 기계장비·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무형재산권을 임대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

< 당해년가격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의 산출액은 서비스업통계조사결과 및 관련 기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며, 부가가치는 산출액에 관련 통계자료를 통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또한 주택소유 부문은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주택에 대한 귀속임료와 임대가옥에 관한 주택임료를 합하여 추계한다. 부동산업의 부가가치는 산출액에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 기준년가격 >

부동산업이나 사업서비스업의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당해년가격 산출액, 당해년가격 중간소비를 관련지수로 환가하여 구하며, 기준년가격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12) 사업서비스업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과 법무, 회계, 광고, 시장조사,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등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 활동과 고용지원 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 서비스, 사무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 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당해년가격 >

사업서비스업의 산출액은 서비스업통계조사결과 및 관련 기초 자료등을 이용하여 추계하며, 부가가치는 산출액에 관련 통계자료를 통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 기준년가격 >

사업서비스업의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 및 중간소비는 당해년가격 산출액, 당해년가격 중간소비를 관련지수로 환가하여 구하며, 기준년가격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공공행정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기초자료로 추계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경제활동에 따라 표준산업분류로 분류한 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을 제외한 산업분류는 타산업 부문에서 추계한다.

또한, 사회보장기관은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에 분류하여 추계하였으며, 1993SNA의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비파괴용 군사장비에 대한 지출은 총고정자본형성으로 추계하였으며, 도로, 댐, 치수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도 고정자본소모를 계상하였다.

< 당해년가격 >

중앙정부는 세출결산자료,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연감 및 기타결산자료, 정부출연기관은 결산서를 이용하여 피용자보수, 중간소비 등 이전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당해년도 경상지출로부터 산출액 구성항목을 추계한다. 이때 피용자보수에는 공무원의료보험 및 연금에 대한 국가부담금을 더해서 추계한다.

< 기준년가격 >

공공행정 및 국방의 기준년가격에 의한 산출액은 기준년가격에 의한 부가가치와 중간소비를 합하여 구하여 지는데 기준년가격에 의한 부가가치와 중간소비는 각각 당해년 가격을 임금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등 관련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14)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은 유치원, 초·중·고,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평생교육원, 입시학원, 보습학원, 직업훈련학원 등 기타교육기관 등이 해당된다.

< 당해년가격 >

공립 유치원, 초·중·고는 교육비특별회계(도서관 운영 관련 제외)와 학교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국립 유치원, 초·중·고, 국립전문대학, 국립대학·대학원은 정부결산의 일반회계 및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집하는 기성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사립 유치원, 초·중·고는 교육통계연감, 학교회계 및 학교법인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사립전문대학 및 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며, 기타교육부문은 경제(서비스업)총조사 및 사업체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계한다.

<기준년가격>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금지수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중간소비는 당해년가격 중간소비를 관련 물가지수로 나누어 추계한다.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추계한다.

1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보건은 각종 종합병원, 일반병원, 의원, 한방병원, 보건소, 치과병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과 수의업을 대상으로 추계하고 사회복지지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수용시설 및 보육시설, 직업재활원 등의 비수용 복지시설을 포괄하여 추계한다.

<당해년가격>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출결산서, 서비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활동지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보건복지통계연감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와 중간소비를 추계한다.

<기준년가격>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당해년가격 산출액을 소비자물가지수 및 임금지수 등을 이용하여 추계하며, 중간소비는 당해년가격 중간소비를 관련 물가지수로 나누어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1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에는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당해년가격>

산출액에는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정부결산서 및 해당기관의 결산서, 서비스업통계조사, 서비스업생산지수 등 관련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관련자료를 이용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중간소비는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기준년가격>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관련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는 당해년가격 중간소비를 중간투입지수로 나누어 추계한다. 기준년가격 부가가치는 기준년

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17) 기타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은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업,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종교, 노동단체, 정당, 산업단체 및 가사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추계한다.

< 당해년가격 >

산출액은 정부 및 해당기관의 결산서, 서비스업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관련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부가가치는 관련자료를 이용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한다. 중간소비는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한다.

< 기준년가격 >

기준년가격 산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계하고, 중간소비는 당해년가격 중간소비를 관련 물가지수로 나누어 추계한다. 부가가치는 기준년가격 산출액에서 기준년 가격 중간소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 편 집 진 】

기획관실 기 획 관 신 만 회
통계담당 정 한 용
담 당 자 이 병 우

통계청 승인간행물 : 211-04호

=====

2009년 기준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발행일 : 2011년 12월

발행처 : 강 원 도

편집처 : 기 획 관 실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15)

☎ (033)249-2491, FAX (033)249-4143

인터넷 : <http://stat.gwd.go.kr>

=====

비 매 품